

어르신 만학도에 '확대 교과서' 지원

학생들의 제작 요청으로 시작... 18종 교과서 확대 제본 완료
익산시, 전국 최초 시행... A3 교재 직접 제작·함열여고 전달

익산시가 만학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맞춤형 확대 교과서'를 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고령의 늦깎이 학생들을 위해 A3 크기로 확대 제작한 교과서를 함열여자고등학교 시니어반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사례로, 고령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학습 지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17일 '함열여고 시니어반 간담회'에서 만학도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당시 학생들은 "기존 교과서는 글씨가 너무 작아 공부할 때 눈이 피로하다"며 확대 교재 제작을 요청했다.



시는 이에 즉각 대응해 18종의 교과서에 대해 각 출판사와 협의 후 PDF 파일을 확보, 자체적으로 A3 크기로 확대 제본을 완료했다.

확대 교과서를 받아 든 학생들의 반응도 뜨겁다. 한 학습자는 "이제는 글씨가 또렷하게 보여 공부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믿음으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만학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확대 교과서 제작을 계기로 시작장애인에게만 제공되는 '저시력 교과서'를 만학도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익산시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국립군산대 박물관, 문화유산 탐방 후 기록·사진 등 전시로 선보여

국립군산대학교 박물관은 지난 17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1회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학년도 국립대 학육성사업 진로·전공 탐색 사업의 일환으로 'Heritage Archiving' 우리가 기록한 문화유산'이란 주제에 문화유산을 직접 탐방하고 기록한 내용을 전시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회차 탐방은 전북 지역 가야 문화유산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장수 삼봉리 가야 고분군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문화해설사의 해설이 제공되었으며, 전북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이 마련돼 학생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실무형 교육 기회와 진로·전공 탐색의 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탐방에는 국립군산대 역사학과를



비롯해 자율전공학부, 수학과, 법행정 경찰학부, 첨단과학기술학부, 회계학부, 수산생명의학과, 벤처창업학과 재학생들이 함께 참가했다. 한편, 국립군산대학교 박물관은 오는 30일에 2회차 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며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진과 기록 중 우수작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박물관 전시공간인 '갤러리 잇_다'에서 기획 전시로 선보이는 등 체험의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고 기록·보존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대조천 자연재해 예방 정비 추진

총 548억원 투입·구조적 개선 통해 수해 대응력 강화

익산시가 대조천 유역의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익산시는 우기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대조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하류부 임시저류지 공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48억원(국비 274억원, 도비 109.6억원, 시비 164.4억원)을 들여 산북천 합류점에서 초상제까지 4.25k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제방 보강(9.19km), 교량 재가설(17개소) 등으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상습 침수 피해를 근본

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정비사업 착공 시기가 2026년으로 예정돼 우기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류부 임시저류지 조성사업' 우선 착공을 결정했다. 하류부 임시저류지 조성 사업은 약 6만18,000㎡ 규모로, 총 26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토장 확보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기철 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이리로 MICE 통장' 여행 프로그램 운영

문화도시 익산시가 지역의 보석같은 매력을 알릴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이리로 MICE(Maryong Iksan City Emerald) 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리로 MICE 통장은 익산 전역을 여행하고 인증을 통해 보상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마룡(Maryong)·익산(Iksan)·도시(City)·보석(Emerald)의 약자를 활용해 '익산의 보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익산역 앞 '여행자센터' 또는 인화동 '술리문화공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 5,000원을

내면 이리로 MICE 통장과 마룡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에는 축제, 행사, 체험 등 익산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현장에서 찍은 도장, 인증사진, 영수증 등을 통장에 기록할 수 있다.시는 이리로 MICE 통장이 여행의 재미와 함께 수집하는 즐거움을 제공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 www.culturecityiksan.or.kr 또는 전화 (070-4110-6783, 010-7788-737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신규 선정

유망 강소기업 - 명일책임해양·미광기획·풍림파마텍

강소기업-제이아이테크 선정... 지역경제 성장동력 기대



군산시는 19일 지역경제를 선도할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3개 사와 강소기업 1개사를 신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군산시의 대표 산업육성 정책이다. 올해는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4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명일책임해양(주)은 1998년 설립 이래 책임

(JackUp)바지선을 전문으로 설계·제작·판매하는 해양 특수 구조물 전문 기업이다.

책임(JackUp)바지선은 바지선(작업장)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책임(JackUp) 시스템을 갖춘 바지선을 말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책임바지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치인 액엔파니언 타입 책임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미국 선급협회(ABS)로부터 '제품 설계 인증(PDA)'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렇게 명일책임해양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국내의 시장에서 입지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한편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유)미광기획은 디지털 광고·전시 제조, (주)엔알비는 이동식 모듈러 건축물, (주)코어는 기능성 창대·매트리스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다.

군산시는 2019년부터 도내 최초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사업'을 도입해 지금까지 유망 강소기업 30개사, 강소기업 5개사를 발굴하여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제품 고급화,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2019년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주)풍림파마텍은 주사기, 주사침, 바이알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열린 '제22차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에서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주)제이아이테크는 반도체 프리커서(Precursor)와 OLED 소재를 생산해 국내외의 주요 반도체 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에 이어 2022년 코스닥 상장제 성공하는 등 지역 기반 기업의 글로벌 성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병역미필자 대상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익산시는 이달부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청년들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던 병역미필자도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병역 관련 서류 제출없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병역미필 청년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출국 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을 초과한 체류 시에는 여권이 무효 처리되거나 반납 조치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학이나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병역미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유지되는 만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등 점검 완료

군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배수펌프장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총 8개소의 배수펌프장과 3개의 우수저류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련 전문업체와 협력해 배수펌프를 실제 가동하며 설비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전체적 시설 운영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시설은 즉시 보수 및 교체를 통해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색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